



LG CNS
Consulting and Solutions

홍성완 상무 LG CNS 엔트루컨설팅사업부부장

엔트루 컨설팅, 독자 컨설팅 역량 확충 박차

“올해 BPM · IT거버넌스 분야 선두 입지 굳힐 것”

글로벌 컨설팅 업체가 국내 IT컨설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업체가 있다. 바로 LG CNS의 엔트루컨설팅 조직이다.

최근 들어 독자적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엔트루컨설팅사업부(이하 엔트루컨설팅)은 올해 BPM(업무프로세스관리), IT거버넌스 분야에서 선두업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 SCM(공급망관리), 로지스틱스, CPM(기업성과관리) 분야 시장공략도 강화할 방침이다.

LG CNS 엔트루컨설팅사업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홍성완 상무는 “엔트루컨설팅이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지원조직에서 사업부문으로 변경됐

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인 컨설팅 사업 수주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상무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전략으로 올해 BPM, IT거버넌스, SCM, 로지스틱스, CPM 등 5개 분야를 주력 솔루션 분야로 선정해 집중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분야로는 공공, 제조, 서비스 분야를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으며, 특히 금융 분야는 올해를 기점으로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트루컨설팅은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원으로 영입하는 등 대대적인 보강에 나서고 있다.

엔트루컨설팅은 LG CNS의 사업 영역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왔으며,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제안하거나 수주해 수행한 경험도 있다. 엔트루컨설팅은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응, 글로벌 업체들과의 제휴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홍 상무는 “16년 동안 국내의 수많은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검증된 방법론과 국내 상황에 맞는 최고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엔트루컨설팅의 최대 강점”이라고 소개하고, “특히 엔트루컨설팅의 컨설팅은 LG CNS의 구현 인력과 연계돼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보다 현실적이다”고 강조했다.

즉, 컨설팅이 LG CNS의 기술 전문가들과 SE들이 적극 참여해 협업 체계가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새로 설립된 솔루션본부에는 기술연구부문과 기술 서비스부문이 함께 있어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 동향에 대한 신속한 지식 습득 및 기술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상무는 시장서 제기되고 있는 엔트루컨설팅 법인 분리설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고개를 저었다.

“최근 컨설팅 시장을 보면 컨설팅과 SI의 영역과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 굳이 엔트루컨설팅이 수행하는 사업과 SI사업을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이 중요한 SI사업이라면 사업부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약 250여명의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는 엔트루컨설팅은 시장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충원 인력은 올해 주력 분야인 5대 솔루션 분야의 전문가 위주다.

엔트루컨설팅은 1991년 설립되어 IT 컨설팅 및 SI 사업 최 일선에서 핵심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설립 이후 ‘베스트 서비스, 베스트 클라이언트’라는 슬로건으로 IT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 국내 정상급 컨설팅업체로 자리매김한 위상에 걸맞게 2004년 11월 새로운 비전인 ‘리딩 이노베이션 파트너’를 발표했다.

엔트루컨설팅은 이러한 비전 아래 그동안 2300건 이상의 컨설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에서 자생한 컨설팅 조직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경험과 사례 부족’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컨설팅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K**